

정치의 미래

- 디지털 시대의 신 정치 선언서 -



- 지 은 이 : 테드 할스테드, 마이클 린드
- 옮긴이 : 최지우
- 발행년도 : 2002
- 출 판 사 : 바다출판사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20세기적인 산업사회의 틀속에서 만들어진 양당제도, 사회시스템, 경제제도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양당제도가 수용하지 못하는 미국 국민들의 요구를 새롭게 포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단적인 이분법에 치우치지 않는 혁신적 중도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인들은 민주, 공화의 양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42%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정치구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과 정당정책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테드 할스테드는 미국의 저명한 공공정책기관인 뉴 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n Foundation)의 설립자로서, 혁신적 중도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혁신적 중도주의를 통해 기존의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제도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책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적 중도의 기본적 취지는 개인의 자유, 기회균등, 국가적 단결이라는 미국 고유의 가치를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보화 시대는 신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상거래의 본질을 바꾸고, 경제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다. 표준화시스템이 주문생산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가 분산화로, 간접매매가 직

접매매로 바뀌어 간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정치시민사회도 변화시켜, 정치권력과 권한의 약화, 온라인 커뮤니티의 등장, 전국 방송의 지역 유선방송으로의 전환 등이 일어났다. 저자는 이런 정보화 시대에 20세기적인 철로를 달리고 있는 정당정치는 생존하기 어려우므로, 혁신적 중도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원칙으로서, 첫째, 국민의 선택자유 보장, 둘째, 보다 높은 시민의식 추구, 셋째, 시민 중심의 새로운 사회계약 구축을 주장한다.

이 책은 미국의 정치현실을 분석한 것이지만, 무당파에 해당하는 선거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특히 디지털 세대의 변화와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서는 정치의 미래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의 2002년 선거에서 분명해졌다고 할 때,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정책과 시스템의 제시를 통하여 흡수할 수 있는 혁신적 중도주의는 한국의 정치미래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라고 본다. 단지 미국의 상황에서 제시한 정책이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문 제의식을 공유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과 시스템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김찬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소 개

들어가면서: 21세기 정치문화에 정책 정당은 꿈인가

1장 총체적 사회개혁 시스템의 등장 -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2장 신경제와 새로운 사회계약 -연금 제도, 의료 보장, 저축 문제를 중심으로-

3장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선거 제도, 세제 개혁,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4장 시민사회 연합을 통한 국가 통합 -시민단체, 이민, 세대 간 갈등, 유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5장 혁신적 중도주의 정치 -국민 중심의 정치 권력화를 지향하며-

후기: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